

광주·전남 마을기업 5년새 29곳 폐업

광주 18·전남 11곳 ... 지난해 11곳 문닫아

10곳 중 6곳은 연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

광주·전남지역 마을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29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마을기업 10곳 중 6곳은 연매출 5000만원 이하로 영세해 폐업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팔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마을기업은 2011년 60개(광주 20, 전남 40)에서 지난해 194개(광주 59, 전남 135)로 5년새 3.2배 급증했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정부

와 지자체가 선정해 3년간 총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시범 추진됐고, 이듬해부터 마을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까지 모두 1446개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년간 마을기업 육성에 총 68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222개의 마을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 폐업 마을기업도 29곳에 달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폐업하는 마을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각각 1곳, 2014년 3곳, 2015년 2곳이 폐업했다. 지난해에는 고흥 옥강빌리지마켓, 장흥

다우리, 무안 일로친환경영농조합법인, 신안 우이도분재전사관 등 4곳이 문을 닫았다. 이들 기업은 연매출이 1000만~3000만원 가량으로, 경영 악화를 들어 폐업했다.

광주는 사정이 더 좋지 않다. 폐업한 마을기업이 2012년 2곳, 2013년 3곳, 2014년 1곳, 2015년 5곳, 지난해 7곳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이들 기업은 설립 3년이 지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끊기자 결국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기초체력이 허약하다는 의미다. 이는 앞으로 문을 닫는 마을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광주지역 마을기업의 연 매출액을 보면 0원 1개, 1000만원 이하 12개, 5000만원 이하 23개, 1억원 이하 10개, 5억원 이하 11개, 10억원 이하 2개였다. 전체

의 61%인 36개가 5000만원 이하를 기록했다.

전남지역도 연 매출액 0원 19개, 1000만원 이하 16개, 5000만원 이하 49개로, 전체의 62.2%인 84개가 5000만원 이하로 영세했다.

전국 마을기업의 평균 연 매출액이 8750만원인데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13개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지역 마을기업의 매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소득·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을기업 수가 급증했지만 내실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을 위한 특성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파트 천국 광산구

'통계로 본 광산 30년'

2015년 71.4% 달해
인구 41만명 3.3배 ↑

광주 광산구 주택 유형의 70% 이상이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전 80%가던 단독주택 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광주 광산구는 1988년부터 2015년까지 광산구의 각 분야별 지표를 담은 자료집 '통계로 본 광산30년'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산구는 전남 광산군이었던 1988년 1월 1일 광주에 편입됐다. 광산 30년에는 인구, 산업체, 주택 등 11개 분야로 구분한 의료, 교육, 교통, 공공행정 등 34개의 정보를 설명·그래프와 함께 100쪽 분량의 자료집에 담았다.

인구는 1988년 12만5521명에서 2015년 41만557명으로, 30여년 사이 약 3.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 전체 인구는 111만6332명에서 149만647

명으로 1.3배가량 늘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광산구의 총 주택 수도 1990년 2만4432호에서 2015년 16만5319호로 5.8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80%가 넘는 단독주택 비율은 크게 줄고 아파트가 대폭 늘었다. 1990년 광산구 단독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83.9%(2만489호)였다. 하지만 2015년 단독주택은 전체의 9.4%(1만5497호)로 줄었다.

줄어드는 단독주택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1990년 9.8%(2394호)이던 아파트의 비율은 2015년 71.4%(11만8020호)로 크게 늘었다. 광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도 1990년 30%에서 2015년 64.2%로 증가했다.

'통계로 본 광산30년'은 광산구통계연보, 광주통계연보,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취합해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 전자책방(http://ebook.gwangsan.go.kr/)과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http://imap.gwang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예비마을기업

광주시 6개 선정

기업당 2000만원 한도 지원

광주시는 10일 "최근 '예비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 중인 6개 단체를 2017년도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해 총 9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서구(쌍촌동) 미림문화예술협동조합 ▲서구(세하동) 서창들녘협동조합 ▲남구(양림동) 양림평원마을협동조합 ▲남구(행암동) 숲도래협동조합 ▲남구(월산동) 수박등마을협동조합 ▲북구(매곡동) 매화락협동조합 등 6개다.

예비마을기업 지원은 마을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마을기업 설립준비 단계에 있는 기업을 발굴해 교육·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등의 사업을 위해 기업 당 2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또 우수업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예비마을기업은 2015년 4개, 2016년 2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 기업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은 자치구 단위의 주민이 5인 이상 출자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주지역에는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 현재 총 56개가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최고 8000만원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광욱기자 krah@kwangju.co.kr



제조하는 어르신들 10일 광주시 북구 효령노인타운을 찾은 노인들이 추석연휴 동안의 피로를 제조로 날려버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지자체 8곳 소방서 없어... 전국서 가장 많아

1인 소방 지역대 31곳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전남지역에 소방관 한 명만 근무하는 1인 지역대와 소방서가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0일 소방청이 제출한 '1인 지역대 근무현황 및 소방서 미설치 지방자치단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관 1인이 단독 근무하는 1인 지역대는 지난 2016년말 현재 전국에 모두 59개소

에 달했다. 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 역시 전국에 33개에 이르는 등 소방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 지역대는 2013년 138개소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59개소가 운영 중이며, 특히 전남도의 경우 31개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강원도와 경북도에 각각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또 소방서가 없는 기초 지자체 역시 2013년 45개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 2016년말 현재 여전히 33개나 됐다. 역시 전남도의 경우 2013년 10개, 2016년에는 8

개(곡성·구례·장흥·함평·장성·완도·진도·신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홀로 근무하는 1인 지역대와 소방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 증원은 비용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증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 힘 보탠다

'청년+도시재생 포럼' 운영

광주시는 지역의 청년활동가, 창업자, 기획자 등이 중심이 돼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의 역할을 찾아가는 '청년+도시재생 포럼'을 운영한다.

'청년+도시재생 포럼'은 정부 주도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과 건설 전문가 위주로 진행돼 지역 역량으로 쌓이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참여가 목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만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청년 중심의 논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한달 동안 매주 두 차례 세미나를 열어 포럼 운영의 방향과

주제를 선정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청년, 도시재생을 묻다'를 주제로 모두 4번의 포럼과 20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1차 포럼은 '도시재생에 왜 청년이 필요한가', 2차 포럼은 '누가 도시의 주인공인가', 3차 포럼은 '도시재생, 어떻게 청년이 참여할 것인가', 4차 포럼은 '청년과 도시재생, 무엇을 담아내는가'의 순서로 도시재생에서 청년의 역할, 청년과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청년 구상 등을 도출한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14년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한 시는 창업, 문화, 주거 기능이 결합된 '(가칭)청년복합타운'에 대한 지역청년들의 구상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회 오늘부터 8일간 임시회

전남도의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저소득주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 박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전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등 100여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시 활동도 진행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